

통상연구실

박 지 은 수석연구원 02-6000-5342, jieunpark@kita.net
민 경 실 연구원 02-6000-5498, ksmin23@kita.net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한·중미 FTA 타결에 따른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16일 협상 개시 1년 2개월 만에 한·중미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한·중미 FTA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6개국과의 FTA로 중미 6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타결한 첫 번째 FTA이다. 중미 6개국은 소득이 높지 않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선박 경기 부진으로 중미 6개국과의 무역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FTA 타결이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타이어), 철강 및 건설 장비, 알로에 주스를 포함한 건강음료 등 FTA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미 FTA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중미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01. 한·중미 FTA 추진 현황

- ◎ 지난 2015년 9월 시작된 한·중미 FTA 협상은 2016년 11월 16일 타결되어 협정 발효까지 가서명
→ 정식서명 → 비준절차를 앞두고 됨
- 중미 6개국과 2015년 9월 협상 개시 후 1년 2개월 동안 7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과테말라를 제외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5개국과 95% 이상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하며 한·중미 FTA 타결을 선언
- ◎ 중미 6개국(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 SIECA)¹⁾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6개국으로 구성
 - 중미 6개국 중 파나마를 제외한 5개국은 중미공동시장(CACM) 회원국으로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역내 무관세, 대외적으로는 공동관세 적용
 - 2010년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에 가입한 파나마는 중미공동시장(CACM) 비회원국으로 5개국과는 개별적으로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음
 - 중미 6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규모(GDP) 7위, 인구 4위(2015년 기준)의 유망 시장으로 한국과의 FTA 발효시 가격 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기대됨

1)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 Secretarí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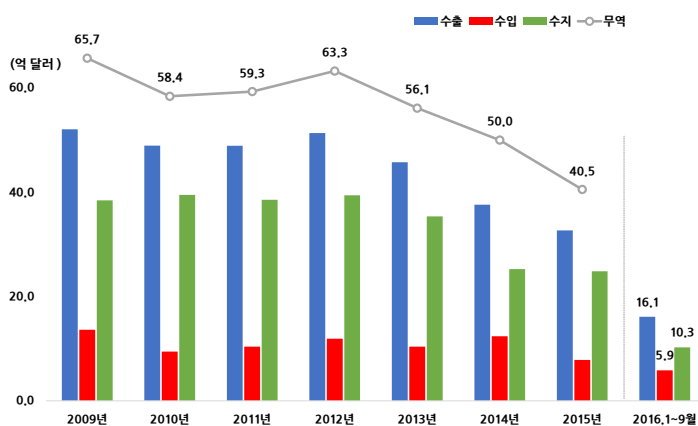
참고 중미 5개국의 관세 체계 : 중미공동시장(CACM)과 중미공동관세체계(SAC)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으로 구성된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1993년)은 불완전한 관세동맹으로서 1993년 2월 27일 발효된 중미공동관세체계(SAC, Sistema Aranceria Centroamericana)에 근거해 각국의 관세체계를 일치시킴
쌀, 육류, 섬유 및 의류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역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예외품목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역외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0%에서 최고 20%의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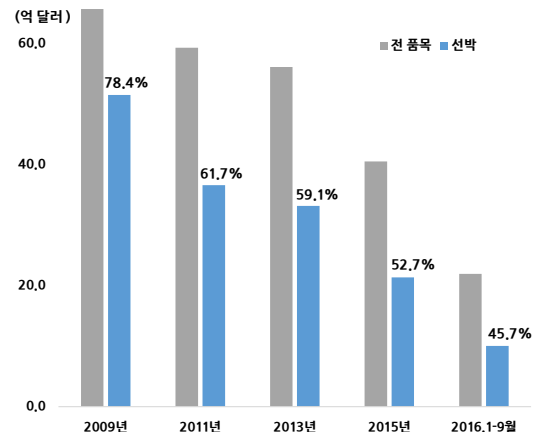
02. 한·중미 6개국 간 무역 동향

- ◎ 2015년 한·중미 6개국간 무역액은 40.5억 달러로 2008년 85.8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감소세
 - 중미 6개국 중 파나마는 대표적 편의치적 국가로 對중미 무역의 주력 품목이었던 선박이 경기 부진으로 교역이 급감함에 따라 한·중미 무역도 최근까지 큰 하락세를 보임
 - 주력 품목인 선박 무역이 2009년 전체 무역액의 78.4%를 차지하며 51.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21.4억 달러로 급감함에 따라 對중미 무역이 크게 위축됨
 - * 편의치적 제도는 선주가 세금 절감, 인건비 절약(외국인 선원 고용), 각종 규제 부담 축소를 위해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편의치적 국가는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이 있음

한국의 對중미 6개국 무역 동향



한국의 對중미 6개국 선박 무역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 한·중미 무역은 상호보완적 구조로 주요 수출품으로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직물 등으로 최근 의약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입은 금속 스크랩, 커피, 반도체, 과일 등 1차 산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
 - * 對파나마 수출과 마찬가지로 對파나마 수입은 파나마 국적으로 등록된 선박(편의치적)의 수입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對중미 6개국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목명	2015	2016. 1~9월			품목명	2015	2016. 1~9월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선박	1,792	703	-46.7	43.7	선박	344	300	5.1	51.3
승용차	445	278	-17.5	17.3	기타금속광물	57	53	28.2	9.0
화물자동차	93	88	29.7	5.4	커피류	61	52	-1.1	8.8
편직물	130	73	-24.7	4.5	개별소자반도체	66	37	-25.1	6.4
전선	40	31	0.3	2.0	의료용기기	17	21	62.1	3.5
경유	52	31	16.5	1.9	아연광	27	17	-10.7	2.9
타이어	42	26	-17.1	1.6	과실류	21	16	-5.3	2.7
자동차부품	31	24	4.1	1.5	고철	27	15	-34.3	2.6
아연도강판	45	22	-43.4	1.3	동괴 및 스크랩	14	11	13.1	1.9
합성수지	42	19	-45.3	1.2	의료용 전자기기	7	9	87.4	1.6
의약품	12	18	102.7	1.1	폐건전지	12	8	-12.9	1.4
소계	2,724	1,313	-34.9	81.5	소계	653	539	2.8	92.1
총계	3,269	1,611	-34.4	100.0	총계	784	585	-8.3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중미 6개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2.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중미 FTA는 중미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중미 6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멕시코와 중미 6개국 역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0% 가량으로 중미 6개국 수입은 미주권에 집중된 구조를 보임
 - 중미 6개국은 CAFTA-DR(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및 중미·멕시코 FTA 체결로 인한 관세 혜택과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미국, 멕시코와의 무역 비중이 높음
 - 한국의 수입 점유율은 1.5~3.5%로 한·중미 FTA 발효시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중미 시장에서 일본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중미 6개국 수입시장 점유율(2015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한국	6위	2.4%	10위	1.6%	7위	2.5%	15위	1.0%	15위	1.5%	7위	3.5%
미국	1위	43.1%	1위	39.4%	1위	36.9%	1위	34.8%	1위	18.0%	1위	25.9%
멕시코	3위	7.1%	4위	7.3%	2위	11.6%	4위	7.3%	3위	10.4%	5위	5.1%
중국	2위	12.1%	3위	8.1%	3위	10.6%	2위	15.4%	2위	14.4%	3위	9.5%
일본	4위	2.6%	11위	1.5%	11위	1.6%	9위	1.7%	9위	2.5%	10위	2.4%
중미 역내	-	7.5%	-	21.2%	-	14.8%	-	17.3%	-	24.5%	-	6.6%

자료 : GTA (Global Trade Atlas)

03. 한·중미 FTA 상품분야 주요 내용

- ◎ 한·중미 FTA는 수입액 기준 98~100%의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달성
 - (수출) 중미 5개국은 對한국 수입액의 93.2~99.3%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국가별로 상이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양허 스케줄(tariff schedule)을 채택함
 - 자동차 및 부품(타이어), 철강, 알로에 음료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
 - (수입) 한국은 對중미 수입액의 98.7~100.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비선형 철폐, TRQ 등의 다양한 양허를 채택하였으며 쌀(협정 배제), 민감 농산물 등은 양허에서 제외함

한·중미 FTA 국가별 양허 현황(수입액 기준)

우리 측의 對중미 양허 현황					중미 측의 對한국 양허 현황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100.0%	100.0%	98.7%	100.0%	99.5%	98.0%	98.1%	93.2%	99.1%	99.3%

주 : 과테말라는 추후 협의를 통해 양허안 확정 예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FTA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한·중미 FTA는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국가 간 품목 분류(HS 코드)가 서로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특혜 관세 거부, 취약한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등의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인정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도입하였음
- ◎ 또한, 중미 6개국은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가입국이 아니지만 한국과의 FTA를 통해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04. 한·중미 FTA 수출 유망 품목

- ◎ 중미 6개국의 1인당 GDP는 4,987달러로 소득 수준은 낮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고, 아직 중미 6개국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없어 한국은 FTA를 통해 관세 철폐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필요
 - * 중미 차원에서는 아직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없으며, 양자 FTA 차원에서 코스타리카는 중국(2011.8월 발효),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는 각각 대만과 FTA를 체결함

- (승용차) 중미 국가들은 자국 내 승용차 생산 기반이 없어 모든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어, FTA로 관세 철폐시 한국산 승용차 수출 확대 기대
 - 최근 5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미 승용차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승용차는 준중형차(1000cc 초과 1500cc 이하), 중형차(1500cc 초과 3000cc 이하)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 일본 등과 경쟁하고 있음
 -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는 승용차에 최고 5~3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인도, 일본산 대비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CAFTA-DR, 중미·멕시코 FTA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산 승용차가 무관세로 중미에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 EU와의 FTA 발효(2013년)로 독일, 영국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어 한·중미 FTA가 발효할 경우 미국, 멕시코, EU와 동등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중미 6개국의 승용차 수입 및 관세율 현황(2015년)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HS)	국가	MFN	수입액	연평균증가율	국가별 수입 점유율
준중형차 (8703.22)	코스타리카	0	146.1	23.3	인도(24.4), 한국(20.7), 태국(19.8)
	엘살바도르	20/25	23.7	22.4	미국(36.4), 한국(21.1), 인도(11.2)
	과테말라	0	77.3	29.7	한국(29.3), 미국(23.8), 인도(18.0)
	온두라스	5	15.9	14.5	한국(40.5), 인도(25.8), 태국(13.4)
	니카라과	10	43.2	30.1	태국(35.9), 인도(30.5), 한국(20.5)
	파나마	0	190.7	25.6	한국(45.3), 태국(26.9), 인도(20.1)
중형차 (8703.23)	코스타리카	0	381.8	12.3	한국(25.8), 일본(21.9), 미국(12.9)
	엘살바도르	25/30	106.6	20.9	미국(75.9), 일본(7.0), 멕시코(5.0), 한국(4.0)
	과테말라	0	322.6	12.2	미국(53.3), 일본(13.9), 한국(10.2)
	온두라스	15	71.0	6.9	미국(50.3), 일본(15.5), 한국(10.0)
	니카라과	10	46.8	13.3	미국(24.2), 한국(22.3), 멕시코(20.5)
	파나마	0	412.3	8.5	한국(28.0), 일본(23.4), 멕시코(15.2)

주1 : 연평균 증가율은 2011년~2015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주2 : 중형차(HS 870323) 세부 품목 중 최근 3년간 對한국 수입이 0.1% 미만인 품목의 관세율은 제외함

자료 : GTA(Global Trade Atlas), 각 국 통계청 및 관세청

- (철강 및 건설 장비) 파나마를 비롯해 주요 SOC 프로젝트의 한국 기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면서 철강 및 건설 장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파나마)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가 2016년 5월에 완료되었지만 지하철, 송전선, 수력 발전 등 정부 주도의 신규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강 및 건설 장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그 외에 니카라과, 온두라스도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평판(HS 7210.61.10) 등의 철강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15% 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한국산 철강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화물차 및 타이어) 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니카라과의 화물차 수입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2.6% 증가함에 따라 5%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 화물차 수요와 함께 타이어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5/10% 관세 철폐시 중국, 일본에 비해 열세인 시장 점유율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중미 6개국의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수입 및 관세율 현황(2015년)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HS)	국가	MFN	수입액	연평균증가율	국가별 수입 점유율
화물 자동차 (8704.21)	코스타리카	0/15	149.6	18.3	태국(53.8), 멕시코(18.3), 일본(8.6), 한국(5.8)
	엘살바도르	1/5	76.8	12.1	태국(28.5), 일본(20.3), 싱가포르(18.3), 한국(15.4)
	과테말라	0	180.1	8.6	태국(67.8), 멕시코(6.8), 한국(6.6)
	온두라스	5/10	115.6	8.5	태국(64.2), 멕시코(15.2), 한국(6.0)
	니카라과	5	126.7	22.6	태국(72.2), 일본(11.5), 한국(6.3)
	파나마	0	47.2	10.9	태국(40.4), 일본(21.3), 멕시코(13.2), 한국(8.2)
버스/ 화물차용 타이어 (4011.20)	코스타리카	5	45.8	11.4	중국(56.1), 한국(7.0), 미국(5.9)
	엘살바도르	5	27.1	10.1	중국(45.6), 코스타리카(11.4), 일본(11.3), 한국(8.9)
	과테말라	5	70.1	8.9	중국(58.6), 일본(9.0), 코스타리카(6.9), 한국(4.4)
	온두라스	5	31.8	17.3	중국(56.7), 일본(7.9), 태국(7.4), 한국(5.0)
	니카라과	5	37.5	8.9	중국(49.2), 코스타리카(13.7), 인도(8.0), 한국(2.3)
	파나마	10	23.0	-0.2	중국(57.9), 한국(12.3), 콜론자유무역지대(7.4)

주1 : 연평균 증가율은 2011년~2015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주2 : 화물자동차(HS 8704.21)의 관세 부과 비중은 최근 3년간 對한국 수입액 기준으로 ① 코스타리카는 무세 비중이 82.8%, 15% 관세 비중이 17.2%, ② 엘살바도르는 1% 관세 비중이 2.3%, 5% 관세 비중이 97.7%, ③ 온두라스의 경우 5% 관세 비중이 93.1%, 10% 관세 비중이 6.9%에 달함

자료 : GTA(Global Trade Atlas), 각 국 통계청 및 관세청

● (음료)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류의 영향으로 알로에 음료 등 한국산 식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15% 관세 철폐시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기대

- 코스타리카, 니카라과는 15%, 파나마는 10%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소득 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수입이 연평균 120% 이상 증가하고 있어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타 음료(HS 2202.90.90)의 중미 6개국 수입시장 현황(2015년)

(단위 : 백만 달러,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수입액	증가율	점유율	수입액	증가율	점유율	수입액	증가율	점유율	수입액	증가율	점유율	수입액	증가율	점유율	수입액	증가율	점유율
11.4	122.7	52.2	23.1	26.5	3.3	53.7	16.9	5.2	23.8	23.3	3.0	28.1	22.4	4.2	42.8	11.4	1.1

주 : 증가율은 2011년~2015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점유율은 對세계 수입에서 對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GTA(Global Trade Atlas), 각 국 통계청 및 관세청

05. 결론 및 시사점

- 중미 6개국은 우리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제조업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중미 FTA를 통한 관세 철폐는 우리에게 수출 확대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중미 6개국 수입시장은 미국, 멕시코 등과의 FTA로 인한 관세 혜택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미주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3년에 발효한 중미·EU FTA로 對EU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FTA 추진은 우리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한·중미 FTA는 중미 6개국의 첫 아시아 국가와의 FTA로 중국, 일본 등과의 FTA 논의가 아직 없어 중미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기대됨
- 중미 6개국의 1인당 GDP는 4,987달러로 소득 수준은 낮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타이어), 철강 및 건설 장비, 알로에 주스 등의 건강음료 등 수입 수요 확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다만, FTA를 활용한 중미 6개국으로의 경제 협력 및 우리 업계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미 6개국의 치안 불안 및 불투명한 금융환경 개선, 부정부패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부록1 한국 및 중미 6개국 경제 현황(2015년)

	명목 GDP(십억 달러)	경제성장률(%)	1인당 GDP(달러)	인구(백만 명)
한국	1,377.9	2.6	27,222	50.6
중미 6개국	227.8	-	4,987	45.7
코스타리카	52.9	3.7	10,906	4.9
엘살바도르	25.9	2.5	4,219	6.1
과테말라	63.8	4.1	3,922	16.3
온두라스	20.5	3.6	2,530	8.1
니카라과	12.7	4.9	2,024	6.3
파나마	52.1	5.8	13,013	4.0

자료 : IMF WEO(2016.10월)

부록2 한·중미 FTA 추진 경과

일 자	추진 경과
2010.10	공동연구 개시(* 대상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2011.4	공동연구 종료(* 대상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2015.4	한·중미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 대상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2015.6.18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5.7.28~30	한·중미 FTA 예비협약(산살바도르)
2015.09.21~25	한·중미 FTA 제1차 협상(서울)
2015.11.23~27	한·중미 FTA 제2차 협상(엘살바도르)
2016.2.22~26	한·중미 FTA 제3차 협상(샌프란시스코)
2016.3.29~4.1	한·중미 FTA 6개국, 회기간 회의 개최(서울)
2016.5.23~27	한·중미 FTA 제4차 협상 개최(테구시갈파)
2016.8.8~12	한·중미 FTA 제5차 협상 개최(서울)
2016.9.26~30	한·중미 FTA 제6차 협상 개최(마나과)
2016.10.24~31	한·중미 FTA 제7차 협상 개최(서울)
2016.11.16	한·중미 FTA 타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fta.go.kr)

부록3 중미 6개국의 FTA 체결 현황

국가	FTA 체결 현황
중미 5개국 차원	중미·칠레(2002~2012), 중미·파나마(2003~2009), 중미·멕시코(2012~2013), CAFTA-DR(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2006~2009), 중미·EU(2013)
코스타리카	캐나다(2002.11.), CARICOM(2005.11.), 중국(2011.8.), 페루(2013.6.), 싱가포르(2013.7.), EFTA(2014.8.), 콜롬비아(2013.8.)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대만(2008.3.), 쿠바(2012.8.), Northern Triangle·콜롬비아(2009.11.)
과테말라	대만(2006.7.), 페루(2013.6.), Northern Triangle·콜롬비아(2009.11.)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대만(2008.3.), 캐나다(2014.10.), Northern Triangle·콜롬비아(2009.11.)
니카라과	대만(2008.1.)
파나마	중미(2003.11.), 페루(2012.5.), 미국(2012.10.), 캐나다(2013.4.), 칠레(2008.3.), 대만(2004.1.), 싱가포르(2006.7.), EU(2012.6.), EFTA(2014.8.), 콜롬비아(2013.9, 서명), 멕시코(2014.4, 서명)

주1 : ()는 발효 일자를 나타냄

주2 : 파나마의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에 가입은 2010년으로 중미 차원이 아닌 파나마 개별국 차원에서 FTA가 추진되었으며 중미 6개국 차원의 FTA는 중미·EU FTA 하나임

주3 : CARICOM은 카리브해 연안의 15개국, Northern Triangle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3개국

자료 : Trade Focus 6호 '주요국 2015년 FTA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미주기구 통상정보시스템(www.sice.oas.org/tpd_e.asp)